



“종교와 이념 떠나 평등한 마음으로 평화 노래하는 공간”

광주 동명동에 감성 소통을 ‘천칭자리’ 문 여는 ‘노래하는 수행자’ 수안스님

‘노래하는 수행자’ 수안스님(광주 관음사 수련원장)은 지난해 7월 첫 정규앨범 ‘길은 떠나며’를 발표하고, 그해 ‘10월의 마지막 밤’ 첫 단독콘서트를 열었다. 이후에도 크고 작은 공연과 공연기금 모금활동 등에 참여하며 종교를 떠나 문화로 소통하고 있다. 특히 일상적인 노랫말과 율조리듯 들려주는 곡은 관객의 가슴속으로 파고들어 ‘힐링’을 선물한다.

수안스님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28일 광주 도심에 감성소통을 ‘천칭자리’의 문을 연다. 동명동 수하갤러리 지하에 자리한 천칭자리는 50평 남짓한 공간에 70석 규모의 객석을 갖춘 공연장이다.

26일 첫 공연 천칭자리는 막바지 개관 준비로 분주했다. 천칭자리는 라이브 공연장과 소풍 공간으로 꾸며졌다. 공연장은 아담한 의자와 함께 곳곳에는 수안스님이 직접 만든 나무 테이블이 놓여 있고, 소풍공간은 역시 손수 제작한 넓은 소파와 왕버드나무로 만든 2m가 넘는 탁자가 자리하고 있어 편안했다.

“올해 초 백양사 포교국장 소임을 마치고 다양한 예술인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주에는 많은 뮤지션이 있지만 설 수 있는 무대가 부족하고, 공연장도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장소를 고민하다가 문화공간이 많이 생기고 있는 동명동이 좋겠다고 싶었고, 또 우연한 기회에 좋은 공간이 나와 당장 공연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천칭자리는 작은 소풍 하나까지 수안스님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는 지난 여름 2달간을 온전히 천칭자리에서 보냈다. 출가 전 고가구 제작과 뿌리 공예를 하는 등 남다른 손재주가 있었기 때문

의자·테이블 등 손수 만들어
여름 두달간 개관 준비 구슬땀
매달 음악회·북 콘서트·강좌...
내일 5명의 연주자와 개관공연

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손수 테이블은 물론 책상과 책장들을 공간에 맞게 짜 넣었다.

“천칭자리를 준비할 때 여러 선배 스님들은 그냥 포교당이나 하나 차리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목표는 종교와 이념을 초월해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천칭은 평등과 평화, 정의의 상징이에요. 제 별자리도 천칭자리입니다. 이곳은 종교를 떠나 서로 평등한 마음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공간입니다.”

천칭자리에서는 매달 수안스님의 정기공연과 광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음악인들의 콘서트가 열린다. 시인, 소설가 등 문인들과 함께하는 북 콘서트,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 등 소풍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 통기타 동호회를 만들어 함께 기타를 배우고, 회원들의 정기공연도 가질 계획이다.

특히 영화 ‘러널리스’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오픈 마이크’ 공연도 진행한다.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들이 오픈마이크가 열리는 날 찾아와 자유

롭게 무대에 서는 형식의 공연이다.

“사건 작가, 문인, 연주자, 가수, 화가 등 서로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 많은 것을 나눴으면 합니다. 문화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찾아와 주셨으면 해요. 함께 느끼면 되니까요. 5포 세대, 9포 세대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사회가 점점 불안감만 쌓이고, 문화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일수록 더욱 문화가 필요해요.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힘은 문화에서 나옵니다.”

단정공예전문가 조혜영 작가, 대광여고 장정희 교사, 박인정 사진작가, 광주불교방송국 최강일 기술부장 등이 운영위원으로 천칭자리와 함께한다. 광우영 기타리스트가 음악감독을 맡아 각종 공연 프로그램을 이끌어간다.

천칭자리의 개관을 축하하며 소설가 이외수, 시인 류근, 최원정 아나운서 등이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외수는 “아는 것보다 느끼는 것이 낫고, 느끼는 것보다 깨닫는 것이 낫다”라며 “하지만 느끼기 못하면 깨닫지 못한다. 감성소통을 천칭자리가 많이 느끼고 깨닫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8일에는 개관 공연이 열린다. 수안 스님은 5명의 연주자와 함께 앨범 수록곡 ‘그랬구나’ ‘참다행이다’와 기성곡들을 들려줄 계획이다.

한편 수안스님은 현재 광주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오는 9월부터는 생방송 음악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10-9802-9985. /김정인기자 kki@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남미 풍광·디아스포라 한인들 애환 오롯이 민남기 대성교회 목사 ‘60일간의 남미여행’ 펴내

안데스 산맥, 이구아수 폭포, 아마존 강 등 남미대륙의 신비로운 풍광을 목회자의 관점에서 담아낸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대성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민남기 목사의 ‘60일간의 남미여행’(파피루스)은 지난 2014년 안식년을 맞은 저자가 2개월에 걸쳐 둘러본 남미대륙과 디아스포라 한인들에 대한 단상을 오롯이 담아냈다. 책은 아마존 지역에 상파울루,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티아고 등 대도시에서부터 페루의 MATCHPICK, 아르헨티나 이구아수 폭포에 이르는 남미의 유적과 풍광이 담겨 있다.

그동안 남미여행 관련 책들이 적지 않게 출간되었지만 현지 목회자의 시각으로 남미를 바라본 책은 많지 않아 새로운 관점으로 남미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저자가 남미를 찾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현지 선교를 하기 위해서였다. 아마존 강과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선교지를 방문하고, 아울러 대도시에 거주하는 한인



들을 만나 이들의 성공적인 삶을 고국의 동포들에게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민 목사는 “남미에서 만난 헌신적인 디아스포라 한인들의 가슴 뿌듯한 애환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면서 “여행에서 보고 느낀 아름다운 풍물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행을 꿈꾸는 이들에게 길잡이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skypark@

‘한국소설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김애란

‘에스24’ 네티즌 투표 선정

2002년 단편소설 ‘노크하지 않는 집’으로 데뷔해, 맛깔스럽고 능숙한 문장으로 삶의 비애를 유머러스하면서도 따뜻하게 풀어낸 김애란(사진) 작가가 ‘한국소설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에 선정됐다.

이 같은 결과는 인터넷 서점 에스24가 지난 8월 4일부터 24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소설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를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드러났다. 김애란 작가가 전체 2만7047명 중 7820표(8.5%)를 얻어 1위에 뽑혔고 함평 출신 정유정 작가는 6614표(7.2%)로 2위에 올랐다. 3위와 4위

는 각각 5314표 (5.8%)와 4619표(5%)를 얻은 천명관 작가와 손아람 작가가 선택을 받았다.

한편 에스24는 투표에 참여한 독자 중 100명을 초청해 오는 9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젊은 작가들과 함께하는 1박 2일 문학캠프를 진행한다. 경기도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진행될 이번 가을 문학캠프에는 김애란 작가를 비롯해 젊은 작가 2~3명도 참가할 예정이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태안 고선박 ‘마도 4호선’은 조선시대 조운선

나주 조세미 운반하던 선박

지난해 충남 태안 마도 해역에서 발견된 고선박 ‘마도 4호선’이 한국 수중고고학 사상 최초의 조선시대 선박으로 확인됐다. 특히 마도 4호선은 조선시대 나주에서 거둬들이는 세곡을 서울로 보내는데 사용됐던 선박으로 확인됐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 4월22일부터 마도 4호선 정밀조사를 진행한 결과 ‘광흥창(廣興倉)’이라고 적힌 목간, ‘내선(內膳)’이라고 쓰인 분청사기 등 유물과 견고한 선박 구조로 미루어 이 배가 조선 초기 조운선(漕運船)으로 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조운선은 조세미(租稅米)를 지방 창고에서 중앙 창고인 경창(京倉)으로 운반하던 선박이다.

마도 4호선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고선박 13척 가운데 유일하게 조선시대 선박이다. 조선시대 마도 해역에서는 무수한 배가 침몰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이 시대의 배가 실물로 출현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선박 안에서 글을 쓴 나무조각인 목간 60여점을 확인했다. 대부분 출발지인 나주와 종착지인 한양 광흥창을 뜻하는 ‘나주광흥창(羅州廣興倉·현재 마포 광전동 부근)’이 적혀 있었다.

목간과 함께 나온 분청사기 대접과 접시 140여점 중 3점에서는 조선시대 궁궐 물품을 관리하던 관청인 ‘내



‘나주광흥창’ 명 목간
섬시(內膳寺)를 뜻하는 ‘내선’이라는 글자가 확인됐다. 현재 마도 4호선은 마도 북동쪽 해역의 수심 9~15m 지점에 파묻혀 있으며, 규모는 길이 13m, 폭 5m, 깊이 2m이며, 형태는 바닥이 평평한 평저선(平底船)으로 파악됐다. /김정인기자 kki@kwangju.co.kr

전남대 기초교육원 ‘대학 글쓰기 윤리 교육 방안’ 워크숍

지난 6월에 벌어진 신경숙 작가의 표절 논란은 사회 전반에 걸쳐 윤리 문제를 환기시킨 중요한 계기였다. 학문 공동체인 대학에서도 표절을 둘러싼 윤리 문제는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다. 전남대 기초교육원(원장 홍은실)이 대학 글쓰기에 있어 윤리교육 방안을 토대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27일(오후 4시~5시 40분) 진리관 701호(e강의실)에서 ‘효과적인 대학 글쓰기 윤리 교육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학문·학술 공동체에서 필요한 글쓰기 윤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모색한다.

민경재(법학과·전남대 글쓰기 담당교수) 박사가 강사로 나서 표절 방지 및 효과적인 윤리 의식 제고 등에 대해 강연한다.

종합 토의 시간에는 ‘전남대 글쓰기 교육에 관한 학생 및 교수 인식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글쓰기 교육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글쓰기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자나 글쓰기 교육에 관심 있는 일반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문의 062-530-0916.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KREI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제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외벽 패턴: 방수방열단열, 방수방열단열, 방수방열단열, 방수방열단열, 방수방열단열

홈페이지 방문하시면(이메일주소) 카탈로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우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파주 흥빛길 5회 연속 선정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sojang.com | 예약문의 (062)525-2111